

## 第 22 课: 韩国的生活风俗    한국의 생활 풍속

(1)

문수:수잔 씨는 이제 한국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어요.

수잔:네,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일 년 정도 살다 보니 많이 익숙해졌어요.

문수: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수잔:처음엔 무엇보다도 침대를 사용하지 않고 방바닥에서 자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그리고 방바닥에 앉는 것도 그랬고요.

문수:저는 술자리에서 고생까나 했습니다.더 이상 못 마시겠는데도 한국사람들이 자꾸 술을 권하는 바람에 고생한 적이 많아요.

수잔:저는 실수도 여러 번 했는데 ,언젠가는 남의 집에 초대 받아 가서는 신발을 신은 채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어요.주인한테 미안해서 국을 뺐었어요.

(2)

나라마다 개인과 관련된 기념일 중 행사를 크게 치르는 날이 다르다.한국에서는 생일을 크게 치르는 편인데.그 중에서도 첫 번째,60 번째,70 번째 생일을 크게 치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은 보통 돌,혹은 첫돌이라고 한다.이는 과거에 유아의 사망률이 높던 시절에 아기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라는 의미로 베풀던 잔치이다.이 때는 아기를 위해 생일상을 차리고 가족이 모두 모여 축하를 한다.생일상 위에는 여러 가지 음식 이외에 실 ,책이나 연필,돈 등을 올려놓고 아기에게 집도록 한다.실은 무병장수를 ,책이나 연필은 현명함을 ,돈은 부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기가 이것들을 집었을 때 가족들은 아기가 이런 복들을 모두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믿는다.

예순번째 생일은 환갑,혹은 회갑이라고 한다.이 날은 태어난 날이 한바퀴 돌아 같은 날을 맞이한 날로 ,과거 평균연령이 낮던 시절에 이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만수무강하길 기원하는 의미를 갖는 날이다.경제 현편이 나아진 노닐날은 회갑연을 더욱 거창하게 치르는 경향이 강하다.자손들은 한복을 입고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절을 올린다.일흔 번째 생일인 고회에도 회갑 때와 비슷한 잔치가 열린다.

【발음】 방바닥(방빠닥) 사망률(사망놀)

회갑 (名)回甲,六十岁 환갑 (名)花甲,六十岁	치르다 (他)办
현명하다 (形)贤明	유아 (名)幼儿
누리다 (他)享受	언젠가 (惯用型)什么时候
기념일 (名)纪念日	사망률 (名)死亡率
고희 (名)古稀, 七十岁	돌 (名)一周岁
술자리 (名)酒桌,酒席	—다 보니 (词尾)...中,...着
방바닥 (名)房间地面	—르 뵤하다 (惯用型)几乎...,差一点儿...
무병장수 (名)无病长寿,健康长寿	—깨나 (结尾词)相当,一定程度
거창하다 (形)巨大	권하다 (他)劝

## 1.—다(가) 보니

동사 어간 뒤에 연결해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 새로운 사실을 누끼거나 발견하였음을 의미한다.

(1) ㄱ:왜 이렇게 늦었어요?걱정했잖아요.

怎么晚了这么多?多担心呀。

ㄴ:미안해요.졸다 보니 내릴 정류장을 지나쳐 버렸어요.

对簿区，打着盹儿坐过了站。

(2) ㄱ:세민 씨가 여기까지 웬 일이세요?

世民怎么到这儿来了?

ㄴ:걸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走着走着就来到这儿了。

(3) ㄱ:첫눈에 진주 씨한테 반했어요?

你第一次见到珍珠就被迷住了?

ㄴ:아니예요.자꾸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어요.

不是,老见面就产生感情了。

(4) ㄱ:이 책 재미있어요?

这本书有意思吗?

ㄴ:앞부분은 재미가 없었어요.그런데 읽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前一部分没意思,但读着读着就有意思了。

(5) ㄱ:어,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일곱 시가 넘었네요.

哎哟,说着说着已经过了7点了。

ㄴ:오늘은 그만 집에 가고 아음에 다시 만나요.

今天就到此为止,回家吧,以后再见。

(6) ㄱ:이젠 텔레비전 뉴스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양이네요.

看来现在能听懂电视新闻了。

ㄴ:네,전엔 잘 안 들렸는데 ,자꾸 듣다 보니 이해가 됩니다.

是,以前听不出来,老听老听就理解了。

## 2. 一깨나

명사 뒤에 붙어서 앞의 명사가 '아주 많이'의 의미를 갖는다.

(1) 재는 초등학생인데 벌써 외국에 여러번 갔다왔대요.돈깨나 있는 집 자식인가 봐요.

那孩子是中学生,可已经出国好几次了,看来是相当有钱人家的孩子。

(2) 저 사람 덩치 좀 보세요.힘깨나 쓰게 생겼는데요.

看看那个人的身材,看来力气很大。

(3) 저런 수당쟁이가 우리가 데이트하는 걸 봤으니 소문깨나 나겠네요.

那个爱说闲话的人看见了我们约会,一定会传出大新闻的。

(4)김과장 아들이 친구들을 때려서 경찰서에 잡혀 갔대요.김과장도 아들 때문에 속깨나 썩겠어요.

听说金课长的儿子因为打了朋友被抓到警察局了，金课长该为了儿子非常操心了。

(5)제가 지금은 모범생이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말썽깨나 부렸습니다.

虽然现在我是模范生，在上高中时可惹了不少祸。

(6)옆집 아이가 이번에 서울대학에 붙었어요.그 애 엄마 자랑깨나 하겠어요.

邻居家的孩子这次考上汉城大学了，他妈妈一定会很自豪。

## 2.뭔가/어딘가/누군가/언젠가

내용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없거나 확실한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한다,

(1)ㄱ:작년 왕단 씨 생일에 무슨 건물을 주었지요?

去年王丹生日时你送了什么礼物?

ㄴ:뭔가 준 것 같은데,뭘 줬는지 생각이 안 나요.

好象送了东西，可想不起送了什么。

(2)ㄱ:선영 씨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你知道善荣在哪儿吗?

ㄴ:아까 학교에서 보았으니까 학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刚才在学校看见他了。可能在学校什么地方。

(3)ㄱ: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没听见什么声音吗?

ㄴ:네,들렸어요.밖에 누군가 온 것 같아요.

对，听见了，好象外面谁来了。

(4)ㄱ:저 사람 누구인지 알아요?

你知道那个人是谁吗?

ㄴ:기억은 안 나지만 언젠가 본 것 같습니다.

虽然想不起来了，可好象在哪儿见过。

(5)ㄱ:차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요.

车上发出了什么声音。

ㄴ:머칠 전부터 어디에선가 소리가 나는데 정확히 어디서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从几天前哪儿就发出了声音，可不知道到底是哪儿出来的。

(6) ㄱ: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你听过这个故事吗?

ㄴ:네,언젠가 누구에게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对，好象什么时候从谁那儿听到过。

#### 4. -아/어서 죽을 뻔했다

'무척 -했다'의 구어적인 표현으로,형용사 어간 뒤에 사용된다.보통 화자가 어떤 것 때문에 매우 고생하거나 힘들었던 경우에 사용한다.'-아/어서 죽는 줄 알았다'의 표현을 쓰기도 한다.현재의 상황을 나타낼 때는 '-아/어서 죽겠다'라는 표현을 쓴다.

(1) ㄱ:여행 재미있었습니까?

旅行有意思吗?

ㄴ:재미는 있었는데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有意思是有意思，就是差点儿累死。

(2) ㄱ:오늘은 하루종일 바빠서 죽을 뻔했어요.

今天一整天都快忙死了。

ㄴ:점심은 먹고 일했어요?

吃了午饭就工作的吗?

(3) ㄱ:어제는 머리가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昨天几乎头疼死了。

ㄴ:지금은 어때요?다 나았어요?

现在怎么样?好了吗?

(4) ㄱ:아까는 다리가 저려서 죽을 뻔했어요.

刚才腿麻得厉害。

ㄴ:계속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다리를 펴고 앉지 그랬어요.

一直蹲着吗?被该伸腿坐的。

(5) ㄱ:잔치에 가서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왔니?

在宴席上是不是吃了很多好吃的?

ㄴ: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하더니.이침도 굵고 갠데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都说名气大的宴席上没什么可吃的，确实如此。早饭也没吃就去了，可没有吃的，都快饿死了。

(6) ㄱ:저 영화가 그렇게 재미있다면서요?

听说那个电影很有意思?

ㄴ:꼭 보세요. 며칠 전에 봤는데 우스워 죽는 줄 알았어요.

请一定去看看，前几天看了，差点没笑死。

휘다 (他)弯,弯曲	
지나치다 (他)过分	쪼그리고 앉다 (词组)蹲坐
보수적 (名)保守的	이성 (名)异性
농경 (名)农耕	덩치 (名)身材,身架
힘을 쓰다 (词组)尽力,用力	ㅡㄴ 양 (惯用型)好象...,仿佛..
체격 (名)体格	찔찔매다 (自)束手无策
수다쟁이 (名)爱说话的人,多嘴的人	자랑하다 (自)夸耀,以...自豪
속이 썩다 (词组)心焦,操心,伤心	아끼다 (他)省,珍惜
다리가 저리다 (词组)腿麻	묶이다 (自)被捆
개념 (名)概念	낯이 익다 (词组)面熟